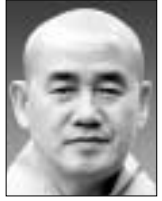




독거노인·소년가장 쌀 보시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10일 서대문구 홍은3동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쌀 20kg 70가마를 보시했다.



발전기금마련 독창회 개최
 시명 울산 극락사 주지는 28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증강당에서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 발전기금마련 독창회를 연다.



1월 다보법회 봉행
 종범 중앙승가대 총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1월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02)703-0108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16일 불우이웃돕기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생명나눔실천회에 전달했다.



구미 장애인복지관장 부임
 시용 천태중복지재단 정책실장(구미 금릉사 주지)은 최근 구미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으로 부임했다.



장기기증 위한 법회 봉행
 법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은 2월 10일 영남불교대학에서 '장기기증을 위한 법회'를 봉행한다.



25일 태백산 눈꽃산행
 수경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제29회 산행 모임 '태백산 눈꽃산행'을 한다. 019-426-7980



소백산 심설 산행
 노종백 한국불교산악회장은 19일 올해 첫 정기모임을 갖고 경북 영주 소백산 심설 산행을 실시했다.



전북 불교대서 동계특강
 해거 서울 금강선원장은 25일 오후 3시 전북불교대학 대법당에서 동계특강을 연다. 063-226-7878



'니들의 집' 신임 원장에
 원행 무주 안국사 주지는 10일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토촌 '니들의 집' 원장에 선출됐다.



이웃돕기 하루첫집 열어
 박수관 범어사신도회장은 22일 부산 서면 하나방에서 자비의 손길 이웃돕기 하루첫집을 연다.

지역불교 일구는 사람들 ②

강수균 (법륜불자교수회 회장)

올 세계교수불자대회 성공 최선 불자교수 대학생 연계 포교 추진

"올해 처음 열리는 세계교수불자대회를 성공리에 회향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륜불자교수회 회장 강수균 교수(대구대 언어치료학과)의 새해 첫 소망이다. 1988년 창립한 교수 신행단체인 법륜불자교수회 회장 강수균 교수는 지난해 강원도 백담사에서 열린 한국불자교수대회에 참가, 세계불자교수대회를 올 8월 법륜불자교수회에서 주관

를 여법하게 마무리해 한국 불교 지력을 세계 여러 나라의 불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얼마 전 대학생불교연합회의 회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비애감이 들었다는 강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한문으로 된 어려운 경전과 지도법사가 부족하기 때문"

이라며 "불자교수와 대학생불자의 연결고리를 마련해 침체돼 가는 대학생 포교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법륜불자교수회 활동 외에도

불교문화 포교사 역할 다할 것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경일현 회장



"박물관 자원봉사를 통해 전통문화인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포교사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방대함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경 회장은 "6개월간의 교육으로는 부족해 박물관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회원들의 자질을 자랑했다. 경 회장은 "문화에 대한 소양은 어릴 때부터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화자원봉사회 회원 자녀들부터 문화답사나 관람 등에 참여시켜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열어봤으면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자원봉사회 회원들도 박물관 봉사에 국한되지 않고 도량 청소,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 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초발심 자세로 청소년 포교

전국교법사단 김형중 신임단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법사단의 발전과 청소년 포교를 위해 초발심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3일~16일까지 동국대 불교대학원 강의실에서 열린 제35차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정기총회에서 신임 단장으로 선임된 명성여교 김형중(48) 교법사는 "그 어느해보다 노력하는 교법사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단장은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으로 창의적 재량활동 과목이 생김에 따라 전통문화, 심성교육, 문화유산교육 등을

중심으로 불교와 연관된 보조교재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 빠른 시일내에 보조교재 개발 실무진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교의 근본 교리 등을 청소년들에게 맞게 현대적 언어로 해석해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파라미터 청소년문화연구 소장을 맡으며 청소년 교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 단장은 교법사단이 파라미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매진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또 교법사단지를 만들어 교법사들의 활동과 교법사단의 역사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정년 때까지 '열반경' 완역 목표

하여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외국에 가보면 티베트 등 동남아 스님들은 세계적인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스님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강수균 교수는 세계불자교수대회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우리 불자교수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수균 교수는 또 세계교수불자대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잘 해내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감 크지만 이번 대회

매주 화요일에 화엄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하여 이름 지어진 '화회'에서도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어려운 한문으로 된 불교경전을 보다 많은 불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강 교수는 정년퇴임까지 완역을 목표로 '대반열반경'의 한글 번역을 맡고 있다.

강 교수는 정년퇴임 후에도 불교에 바탕을 둔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nia.com

"회원사별 간사 중심체제로"

언론사 불자련 김진평 신임회장



"내세울 만큼 부지런한 실행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연합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확대를 위해 연합회 사업방향설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연합회를 회원사별 간사 중심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회칙 등의 기본 조치가 완비되는대로 정기법회, 수계법회, 성지순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회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외근직 회원의 법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회보 발간, 가정 방문 법회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16일 제2대 언론사불자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KBS 기술본부 김진평 국장 <57, 사진>은 올 상반기 내에 회원 언론사



원주불교대학 입학식 봉행

원주불교대학(학장 원행)은 11일 원주 구룡사에서 제3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원행스님의 입학 허가 선언 및 인사, 강만길 상지대 총장의 특별강연 '한반도의 평화통일', 조광희 원주교육장의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입학생 74명은 1년 동안 최봉수 박사의 불교교리, 장병조 박사의 불교역사, 김응철 박사의 불교문화 등을 배우게 된다.



삼존불·16나한 봉안식 봉행

조동종 목조정사(주지 행수)는 14일 삼존불과 16나한 봉안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심철, 교육원장 대은, 포교원장 법공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모인 법회는 총무부장 덕성스님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총무원장 스님은 법회에서 "종지 종풍을 주야 정진해 목조선풍을 이 땅에 진작시켜 불국토를 이루자"고 말했다.



조계사 청년회 집진대회 개최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는 14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회 조계사청년회 집진대회'를 개최했다. 정근, 예불 분야 실력을 겨룬 단체전에는 청년회 지혜부와 선정부가 각각 1등 장엄상과 2등 우수상으로 뽑혔고, 반야심경 봉독과 예불 등을 함께 평가한 개인전에는 이상호, 백호정, 전경문 회원이 1등 맑은소리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